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빨리 되지 않는다고 생각 말라

☞ A17면에서 계속

혹은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예사로 거짓을 말하면서 큰스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신용이 없다고 비난받는 사람들이 큰스님의 말씀에 스스로 위안을 받는다면, 어쩌면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도 신용이 없다는 평판을 받는 한국 사람에게 굳이 그런 말씀을 들려주신 까닭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큰스님 애는 애 노릇 하고 어른은 어른 노릇 하랬지 누가, 아니, 어른 노릇 해야 할 때 애 노릇 하라고 그랬고, 애 노릇 해야 할 때 어른 노릇 하라고 그랬습니까? 만약에 부모가 속상해서 병이 들까 봐, 자기의 속말을 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 되는 거지만 그것은 효(孝)고 거짓이 아니죠. 또 자식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시는 분 계세요? 다 못 하죠? 그게 거짓 아닌 거짓이면서도 아주 참, 뜻이 깊은 작용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요, 거짓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거짓 아닌 거짓을 말하는 거죠.

질문자1(남) 네. 스님께서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셨겠지만 특히 아직 어른이 되지도 않았는데 애가 어른이 다 됐다고 우기는 그런 입장에….

큰스님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부처가 돼도 "나는 부처가 아니니라." 했습니다. 왜냐? 내가 표현을 이렇게 한번 해 보죠. 댁들 몸속에 중생들이, 생명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내가 혼자 밥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질문자1(남) 더불어 먹었죠.

큰스님 더불어 먹었죠?

질문자1(남) 예.

큰스님 그러니까 "내가 밥 먹었다" 그러고 내세울 수 없죠?

질문자1(남) 예. 그렇습니다.

큰스님 그래요. 그러니까 밥 먹는 거 하나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만나는 거, 사는 거, 먹는 거 모두가 다 그렇죠. 그래서 공생(共生), 공심(共心), 공용(共用), 공체(共體), 공식화(共食化)하고 천차만별로 다 그렇게 나투고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했죠?

질문자1(남) 예.

큰스님 그랬으니 이게 닥쳐오는 대로 그러한데 뭐가 그게…. 할 일은 해야 하고 안 할 일은 안 해야 되는 거고, 고개가 숙여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세울 게 뭐 있다고 안다고 그러겠습니까, 네? 이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고 그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다 내 마음의 선장에 의해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나다' 한다면 이 속의 생명체들이 '흥, 네가 했다고, 네가 안다고 한다면 너 혼자 실컷 알아 봐라. 너 혼자 실컷 해 봐라.' 이러고선 작용을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자꾸 빗나가게끔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세우지 않는 게 이 부처님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방편으로 표현을 하자면 "내 몸뚱이 속에 많은 중생들이 들어 있으니 나 혼자만이 있다고 세울 게 없는 것이 여래니라." 하는 겁니다.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때로 큰스님께서 가르치는 여러 생활의 방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합리화의 수단이 되는 경우도 부인할 수 없고, 심한 경우에는 그런 계율에 얽매이지 않는 일을 함으로써 자신이 매사에 걸리지 않는 자재로움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사람들에게 은근히 그것을 자랑하고 권하면서 스스로 그런 것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큰스님 그러죠. 애가 갓 태어나서 씹어 먹을 이가 하나도 없는데 고기를 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먹는 사람은 안 먹어야죠. 그리고 어른은 씹어 먹을 수 있으니까 먹어야죠. 그거와 같이 이 마음공부를 하되 진짜로 맡기고 진짜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먹는 것이 그 무명을 벗겨 주는 일이고, 그것을 못하는 자에게는 살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양단간을 놓고 어떤 것이 옳으냐 이런다면 어떤 게 옳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살생이 되니까 먹지 말아야 하고 이건 무명을 벗겨 주니까 먹어야 하고,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 어린애는 먹지 말고 어른은 먹어라 이겁니다. 허허, 먹되 무명을 쓰고 애탄지탄하는 중생들을 위해서 주인공에 맡기고 먹어라. 그 몸뚱이의 살점 하나를 그런 사람이 먹기를 바라면서 천 년을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왜 그게 벗어나기가 힘드냐 하면, 소로 살았으면 소의 습성이 잔뜩 붙어서 그 영(靈)도 사람으로 가지 않고 소로 갑니다. 그래서 소를 면치 못해요. 개도 그렇고 다 그래요. 한 찰나 알았으면 훌떡 뛰어넘으면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무명을 벗지 못하고 세세생생에 그 모습을 쓰고 허덕이는 것이 바로 짐승들의 사연입니다. 그래서 그 무명을 벗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짐승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라도 선승(禪僧)들이 그 살점 한 점 잡수어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고 그냥 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죽이지 않고 풀 이슬만 먹으면서 사는 짐승들도 많습니다. 그런 짐승들이 오히려…, 소가 왜 여물만 먹고 삽니까? 살생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잘못하면 소로 태어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독사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공부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질문자1(남) 스님께서는 먹히는 고기나 먹는 사람들도 다 방생을 하기 위해서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큰스님 이걸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죠. 그러니까 먹을 만한 사람이 먹든지, 먹을 만하지 않은 사람이 먹든지 그건 너희들 생각대로 해라. 지혜롭고 틀림없는 사람들 같다면 모든 걸 거기다 맡기고 먹되…, 옛날에도 이런 점이 있죠.

산간 절에서 스승이 다 죽게 됐어요. 제자가 생각을 하니 참 무엇을 어떻게 갖다가 병을 낫게 할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분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호미를 들고 통을 들고 나갔어요. 지렁이를 그냥 수백 마리를 잡아서 푹 고아 가지고선 그거를 체에다 착 받쳐 가지고 버리고선 '지옥을 가도 내가 갈 테니까 지옥을 보내든지 마음대로 해라.' 하고 그냥 갖다가 드리니까 "이게 무슨 물인데 이렇게 맛있니?"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풀뿌리를 고은 물입니다." 하고선 갖다 드렸더니 그것을 먹고 병이 완쾌돼서 건강하게 도로 다니시더랍니다. 그래도 이것은 풀뿌리라고 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갔겠네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짓 아닌 거짓이 효가 된다 이랬죠. 자기가 죄를 받고 죄를 안 받고 그걸 떠나서, 오직 그 스승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체들을 다 죽였다면, 그건 죽인 게 아니고 그냥 곧바로 인간으로 전부 환생을 시킨 거죠. 예를 들어 닭을 수십 마리를 죽였다 해도 닭의 마음을 한데 합치면 하나가 돼요. 아시겠어요, 그 뜻을? 닭 수효대로 사람으로 화하는 게 아니고, 닭 30마리면 30마리를 한데 합쳐서 한 사람으로 만든다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렁이가 수십, 수백 마리라도 그것은 한 사람으로 인간 환생을 시킬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착한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손들이, 부처님의 손들이 다 응신(應身)으로 화해서 응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어찌 그게 천도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살생이 없죠.

질문자2(남) 제 마음에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을 때에, 부정적인 것은 '저것은 아니야.' 그러고 그저 '놔야 된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은 그것까지도 다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들 말하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서 그것까지 다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약간 맴돌고 있기에 질문드리러 나왔습니다.

큰스님 그렇게 댁에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하는 걸 벌써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자2(남) 네.

큰스님 그게 묘법이죠, 그 알고 있는 자체가. 그러니까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하게 되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이 긍정이다 부정이다 하는 게 한 구멍에서 나오는 거지 두 구멍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도 너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도 너한테서 나올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가 놔라 이 소리예요. 한 구멍에다가!

질문자2(남)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해서 '옳은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옳은 길이면 가면 된다.' 하는 마음을 먹고 있지만, 도반들이 '선행이 있으면 악행도 있는데 선행과 악행을 다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고 합니다.

큰스님 이거 봐요. 받아들이라는 이치는 나쁜 사람이 나한테 접근을 했다, 접근을 해 온다, 망하게 만들어졌다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이 소립니다. 그 왜냐? 전력에 비유한다면 어떤 용도에 쓰든 전력이 똑같듯이, 나쁘게 하는 사람이나 좋게 하는 사람이나 그 전력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천리만리도 멀다 하지 않고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내 주인공에다 모든 걸 놓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도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할 때에 그 마음과 통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응신이라고 그러죠. 만 보살(萬菩薩)이 응신으로 화해서 각계각층 모든 중생들이 원하는 대로 응해 주신다. 나투어 주신다. '나투어 준다' 하는 거는 병을 앓는 데는 의사가 돼 주고, 좋은 데로 못 가서 원하는 사람한테는 지장이 돼 주고, 또 좀 더 살게 해 달라고 하는 데는 칠성이 돼 주고 이렇게 나툰단 말입니다. 딴 걸로 화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가지 않습니까?

질문자2(남) 네.

큰스님 자꾸자꾸 바뀌어서 만나고, 바뀌어서 말하고, 바뀌어서 듣고, 바뀌어서 보고, 발자국을 떼어 놔도 딴 데를 자꾸 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와 같이 모든 거는 그렇게 해서 해결도 하지만, 그러면 이쪽에서 그것을 받아서 차차차차 잘못되는 그 자체를 잘되게끔 자꾸 연결이 돼서 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비하게 하는 사람도 마음이 야비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건지라는 거지, 악한 거를 버리게 되면 인과가 돼서 또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과 선을 몽땅 다, 하나는 감사하게 놓고, 하나는 그냥 되돌려 놓으라는 겁니다. 남이 그르다 하더라도 자기 주인공에다 들이대고 '너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잖아. 그 사람도 본래 나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깐 그렇게 해.' 하고서 거기다 놨을 때에 그 사람도 마음이 변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건져야죠. 그리고 그 뒤에 말 한마디 또 할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녹음을 할 때 차례차례로 녹음을 하죠, 네? 녹음한 대로 차례차례로 먼저 한 거부터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한 거는 맨 끄트머리로 나오죠. 그렇듯이 여러분도 과거에서부터 녹음이 돼서 차례차례로 쌓여졌다고 할까요? 쌓여진 것이 차례차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차례차례로 업이 많이 쌓인 사람이 있고 적게 쌓인 사람이 있는데 그냥 "딴 사람은 그렇게 잘되는데 나는 왜 그렇게 안됩니까." 하고 오는 사람 앞에는 아무 말 없이 "정성이 지극하면 돼."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 업이 너무 쌓여서 그게 모두 다 녹아야 되니까 나온 자리에다 되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앞서 입력된 게 자꾸 없어지면서 줄어들 텐데, 그래서 그게 거반거반 다 됐으면 '어, 이제 거반거반 다 되는구나.' 이렇게 속으로만 말을 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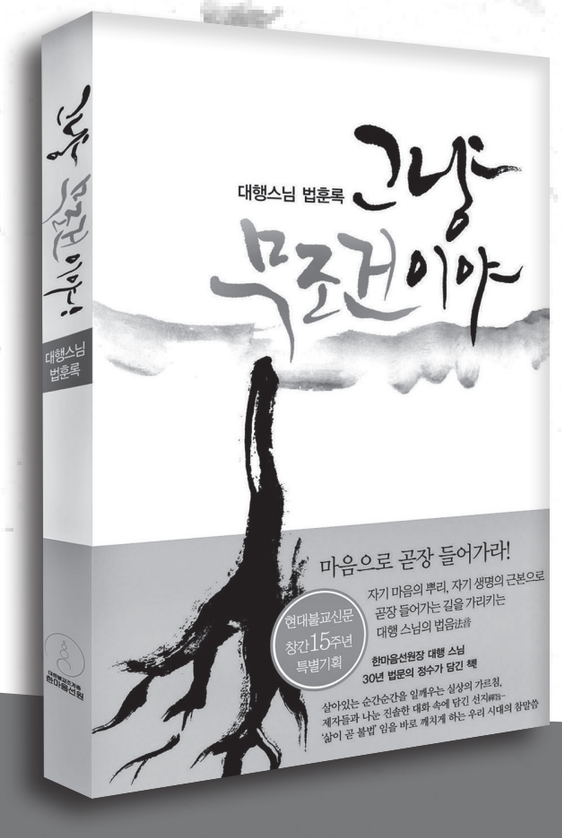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빨리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악업들이, 모두 나쁜 고가 쌓인 것이 차례차례로 없어지는 거니까 좀 인내가 있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고, 실천적이고 평등하고, 이해성 있고 지혜롭고 이래야만이 입력된 걸 무난히 다 폐지시킬 수가 있죠. 새로 좋은 마음으로 입력된 게 나올 시기가 될 때까지 말이에요.

질문자2(남)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나쁜 고가 쌓인 것이 차례차례 없어지는 것이니
좀 인내가 있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

※위 법문은 1994년 1월 2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